

자녀에 대한 꾸지람과 부모로부터의 꾸지람에 대한 이야기: 동성부모자녀간 내러티브탐구를 통하여

Narrative on Scolding of Children by Parents Through Analysis of Same Gender Parent/Child Relationship

탐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조교수 부정민

Department of Counselling Psychology, Tamna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Jung Min Boo

◀ 목 차 ▶

- | | |
|---|---------------------------------|
| I. 서론 | V. 다시이야기하기: 꾸지람의 의미에 대한
내러티브 |
| II. 이론적 배경 | VI.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 IV. 이야기하기: 자녀에 대한 꾸지람과
부모로부터의 꾸지람에 대한 내러티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analyze scolding experiences of three parents with children of same gender. For this research, a narrative inquiry was used as the research method. The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scolding toward children and scolding from parents resembled each other while the experiences of the three parents regarding scolding were revealed as the following four larger themes and three smaller themes: mimicking the scolding of their parents (taking on the parental role toward the projected, internal self of the past, acceptance of familiarity, providing a safety fence to the children), transforming the scolding of their parents, projecting the unsolved task of parenting to children, beginning to transform and evolve scolding, and cautious practice within daily living. In the discussion, methods for transforming and evolving scolding based on experiences of the three parents regarding scolding were studied, while research on parents scolding children with differing genders and how positive experience such as praising, encouragement, and support, from parents reemerged within children are suggested.

주제어(Key Words) : 자녀에 대한 꾸지람(the scolding towards children), 부모로부터의 꾸지람(the scolding from parents),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

우리의 삶은 시간의 연속성 안에 존재한다. 시간 속에 묻어있는 사건, 상처와 그로 인한 정서는 과거의 사람으로부터 현재의 사람으로 이동해 왔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미래의 사람에게로 이동한다. 우리는 그 안에서 그것들에게 영향을 받으며 존재하고 있다. '현재의 나' 안에 '과거의 또 다른 나'가 있고, '미래의 또 다른 나'가 있다(2008년 12월 30일, J, 저널).

I. 서론

인간은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로서 맺어지게 된다(Martin, 1975). 자녀의 첫 대면은 부모이며, 부모와 자녀 관계는 작은 사회를 구성한다. 그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아이에게 학습되며 사회화되어 간다. 성인이 된 부모는 자기 자식을 낳고, 키움으로써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이 된다. 대부분 인간은 두 역할을 하게 되는데, 먼저 자녀의 입장이 되고 나중에 부모의 입장이 된다. 둘 간의 관계에 있어서 역할이 달라지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역할이 달라짐에 따라 상대에 대한 관점도 달라진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역할이 바뀔으로써 새롭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전 부모에게 받은 교육방식, 자녀에게 가졌던 태도나 가치관이 이어지기도 한다(황인숙, 2002). 심지어 부모의 꾸지람이 자녀에 대한 꾸지람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부모로서의 칭찬과 같은 긍정적 경험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장혜자, 2002), 꾸지람과 같은 부정적 경험은 자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꾸지람은 자녀에 대한 원망·비난의 말, 다른 아이 혹은 형제들과 부정적으로 비교하는 말, 아동에 대한 지나친 기대의 말 등을 통해 나타난다. 부모의 의도와는 달리 이러한 꾸지람으로 인해 자녀는 심리적 상처를 입게 되고, 그 상처가 깊은 경우 그것은 꾸지람이 아니라 정서학대로 할 수 있다. 정서학대는 양육자가 말로 무시하거나 욕하거나 위협하여서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상처를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김은주, 2003),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부모의 꾸지람은 자칫 잘못하면 자녀에 대한 정서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는 예상외로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다. 장혜자(2002)는 아동기 정서학대로 인해 부모와 자녀간 애착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며,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신뢰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지적하였다. 또, 정서학대는 증가된 우울의 수준(Briere & Runtz, 1998; Mullen, Martin, Anderson, Romans, & Herbison, 1996; Rich, Gingerich, & Rosen, 1997), 자살(Briere & Runtz, 1988), 낮은 자존감(추소정, 2002), 사회적 능력 손상(김완선, 1996; 김현주, 2002), 그리고 성격장애(Johnson, *et al.*, 2001) 및 불안(Harkness & Wildes, 2002; Kent & Waller, 1998), 해리(Harkness & Wildes, 2002)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한다. 이러한 문

제는 성인기 전반을 거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부모가 된 후, 자신이 성장기에 경험했던 것과 유사하게 자신의 자녀에게 정서학대를 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부모의 꾸지람이 이처럼 심각한 심리·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정서학대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자녀에게 여러 형태와 다양한 깊이로 심리적 상처를 남기게 된다. 또,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초기의 과거 양육경험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보고들(장미자, 1998; 정혜승, 2000; Bretheroton, Biringen, & Ridgeway, 1991; Bowlby, 1973)에 근거한다면, 부모의 꾸지람이 자녀에 대한 꾸지람으로 세대간 전수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누구나 한번쯤 부모에게 호되게 혼나본 경험이 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무슨 잘못을 그다지 심하게 했기에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나의 부모님일까를 의심해 본 기억이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Hahm & Guterman, 2001; 황인숙, 2002 재인용). 자식이 학업 성적이 떨어졌거나, 예외에 어긋난 행위를 했을 때 또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였을 경우 부모는 속이 상한다고 말한다. 또한 부모의 판단에 의해 이러한 사건이 체벌을 낳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데에는 다양한 감정들이 섞일 수도 있고, 지나친 감정으로 인한 행동이나 언어적 표현은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의도와는 달리 자식의 입장에서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황인숙, 2002).

이러한 상처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 간혀 변함없이 남아 있게 된다. 그 상처는 고통스러운 정서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에 필요한 것을 실행하기보다는 고통스러운 정서를 경험하는 것을 피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움쭉달작 할 수 없게 되고, 난국을 극복할 수 없으며, 그들의 성장가능성은 방해받게 된다(노안영, 2008). 그러다 우리가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를 꾸짖는 상황이 되면 이러한 상처 즉, 부모로부터의 꾸지람은 부모가 우리에게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어조와 심지어 동일한 말을 사용하며 자녀에게 그대로 재현된다(Bettelheim, 1987).

특히 우리는 동성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전에 동성 부모와의 관계에서 겪었던 어려운 면을 다시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어머니는 딸을 꾸짖을 때 자신의 어머니와 같이 말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반면, 아버지는 아들을 꾸짖는 상황에서 자신이 어릴 때 부자간에 이루어진 과정을 반복하는 자신을 보게 된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미해결된 갈등을 자녀에게 투사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이 제공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우리의 행동 원인을 검토한다면 이전에 해결하지 못한 유아기의 미해결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Bettelheim, 1987). 미해결 과제나 표현되지 않은 정서가 지금 상황에서 지각되

고 다루어진다면 그것들은 점차 현재의 자각과 효과적인 기능을 방해하지 않게 될 것이며(노안영, 2008), 우리의 삶은 더욱 자유롭고 생기 있게 될 것이다.

한편 자녀에게 사랑스럽게 이야기 할 때는 부모가 사용했던 말투를 전혀 쓰지 않는다. 우리는 긍정적 표현과 행동에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며 대부분 자신의 음성으로 말하게 된다. 이 까닭은 부모에 대한 긍정적 동일시를 억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이 무의식 속에 갇히지 않고 우리가 성장함에 따라 변형되더라도 근접할 수 있다(Bettelheim, 1987).

부모에 대한 자녀의 양면 감정 즉, 긍정적·부정적 감정 중 부정적 면을 지나치게 억압하면 이 양면성의 다른 한 측면인 긍정적 감정의 표현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많은 아동들은 부모에 대한 모든 부정적 감정을 억압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 애착을 형성하며(Bettelheim, 1987), 건강하게 자라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녀에 대한 긍정적 표현보다 부정적 표현 즉, 동성 자녀에게 자주 하게 되는 꾸지람과 동성 부모에게 자주 들었던 꾸지람을 중심으로 지금은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과거에는 자신도 자녀였던 부모와 이야기 해 보았다.

그리하여 부모로부터의 꾸지람으로 인한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줌과 동시에 부모의 꾸지람이 자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며 세대간 전수되는 것을 예방하고, 자녀에 대한 꾸지람을 긍정적으로 변형시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내러티브 탐구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는 알버타 대학의 진 클랜딘인 교수와 토론토대학 오이지(OISE: Ontario Institute for Studies in Education)의 마이클 코넬리(Michael Connelly) 교수가 함께 개발하고 발전시킨 연구 방법이다.

내러티브 탐구란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며, 한 장소 또는 일련의 장소에서 환경과의 상호작용 하에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연구자와 참여자간의 협력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관계망 속으로 들어가서, 이와 똑같은 영감(spirit)을 가지고 탐구를 진행시켜나간다.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삶을 구성하는 경험의 이야기들을 살아내고 이야기하고, 다시 살아내고(reliving) 다시 이야기하는(retelling) 가운데 탐구를 마무리를 짓는다. 간단히 말해 내러티브 탐구는 이야기로 살아내는 삶의 이야기들이다(Clandinin & Connelly, 2000).

Clandinin과 Connelly(2000)는 연구 방법의 틀로 내러티브 탐구의 삼차원적 공간(three-dimensional narrative inquiry spaces)인 개인적·사회적인 상호작용(interaction), 과거·현재·미래라는 시간의 연속성(continuity), 그리고 장소의 개념으로서의 상황(situation)을 제시하였다. 내러티브 탐구자로서 삼차원적 공간 내에서 경험을 연구하고 그 경험을 이야기로 표현할 때, 우리는 이 공간 안에서 우리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와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연구의 참여자만큼이나 우리 자신의 비밀스런 삶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누구인가를 명백히 드러내게 된다(염지숙, 2003).

내러티브 탐구의 절차는 지속적으로 순환적이고 해석적이다. 내러티브의 흐름은 현장에 들어가기(이야기 속으로) → 현장에서 현장 텍스트로(이야기의 장소에 존재하기) → 현장 텍스트 구성하기 → 현장텍스트에서 연구텍스트로(경험의 의미 만들기) → 연구텍스트 구성하기로 전개된다(Clandinin & Connelly, 2000).

2. 게슈탈트 심리학

게슈탈트 심리학은 독일 출생의 유대계 정신과 의사 프릿츠 퍼얼스(Fritz Perls)에 의해 창안되었다. 게슈탈트(Gestalt)라는 말은 ‘전체’, ‘형태’, ‘모습’ 등의 뜻을 지닌 독일어이다.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개체는 어떤 자극에 노출되면 그것들을 하나하나의 부분으로 보지 않고 완결, 근접성, 유사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자극을 하나의 의미 있는 전체 혹은 형태 즉, ‘게슈탈트’로 만들어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엄마가 그릇에 남은 음식 찌꺼기를 버리고, 세제를 사용해 그릇을 닦고, 다시 물로 그릇을 헹구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있던 아이가 ‘엄마, 지금 뭐해?’ 라고 묻는다면 엄마는 ‘응, 지금 설거지하는 거야!’ 라고 대답할 것이다. 여기서 어머니는 아이에게 자신의 행위를 하나씩 따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의미 있는 전체로 설명해주었는데, 여기서 ‘설거지’가 바로 게슈탈트라고 할 수 있다(김정규, 2008).

우리는 대상을 인식할 때 우리에게 관심 있는 부분은 각각의 중심 부분으로 떠올리지만 나머지는 배경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그림을 감상할 때 그림은 전면으로 부각되고 액자는 뒤로 물러가며, 다음 순간 액자에 관심을 가지면 액자가 전면으로 떠오르고 그림은 시야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경험할 수 있다. 이처럼 어느 한 순간에 관심의 초점이 되는 부분을 전경이라 하고, 관심밖에 놓여있는 부분을 배경이라고 한다. 개체가 전경으로 떠올랐던 게슈탈트가 해소되고 나면 이는 배경으로 사라진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으로 관심이 가는 대상을 전경으로 떠올릴 수 있다. 이러한 전경과

배경의 교체는 유기체 욕구와 환경적 여건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런데 개체가 계슈탈트 형성을 방해받았을 때 그것은 배경으로 사라지지 못한다. 그렇다고 전경으로 떠오르지도 못하므로 그것은 중간층에 남아있게 된다. 왜냐하면 개체는 계슈탈트를 완결 지으려는 강한 동기를 지니고 있는데, 아직 완결되지 않았으므로 계속 전경으로 떠오르려 하기 때문이다(김정규, 2008). 이러한 해결되지 않은 욕구나 감정 등과 같은 계슈탈트를 ‘미해결 계슈탈트’ 혹은 ‘미해결 과제’ 라고 말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미해결 과제는 계슈탈트 심리학에서 나온 개념이다. 미해결 과제는 계속 이의 해결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른 욕구나 감정이 형성되는 것을 방해한다(김정규, 2008). 미해결 과제가 많아질수록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데 실패하게 된다(Perls, 1969, 1976). 계슈탈트 심리학에서 미해결 과제는 어떤 형태로든 지금 여기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본다.

3. 대상관계이론

대상관계이론(Object Relations Theories)은 Freud 이후 계속되는 정신분석이론의 한 흐름이며, Klein에 의해 창시되었다. Klein은 런던에서 아동정신분석가로 활동하며, 전 생애에 걸쳐 Freud의 정신분석을 연구하고 실험하였다. 대상관계이론가들은 영국과 미국 두 진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영국진영에 속하는 이론가로는 Klein, Fairbairn, Guntrip, Winnicott, Bowlby, Balint, Bion 등이 있으며 미국진영에 속하는 이론가로는 Hartman, Mahler, Blanck & Blanck, Kernberg, Masterson, Horner 등을 들 수 있다.

대상관계이론은 우리가 성장과정에서 부모를 비롯한 주요 타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표상을 형성하며, 이런 내면화된 표상들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지각과 경험, 관계양식과 문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김현수, 2002). 이 이론에서 대상이란 주체와 관계를 맺는 실제 외부 세계 사람들과 내적으로 형성된 그들의 이미지들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대상관계란 한 개인이 외부의 실제 타자들과 내적인 상상적 타자들과 이루는 상호작용으로 정의된다(김미혜, 김정미, 박지연, 2003). 또한 대상관계란 유아기 때 자신을 돌봐주던 가까운 사람에 대한 이미지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 이미지는 아이가 발달하면서 개인적인 경험들이 축적됨에 따라 변하게 된다. 이렇듯 인생 초기의 대인관계에서 비롯되는 대상에 대한 이미지는 아이의 마음속에 내재화되어 타인과의 대인관계 영역에서 다시 나타나게 된다. 내재화된 대상은 유아의 주관적인 지각과 환상에 근거해서 발달과정 중에 형성되며, 이렇게 이루어진 대상이 다시 지각, 사

고, 전이, 환상 및 현재의 대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반응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내재화된 대상이란 각 개인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무의식적으로 상호 반응하는 존재의 근원이라 볼 수 있다(Sandier, 1990: 김현수, 2002 재인용).

한편 본 연구에서는 투사 및 투사적 동일시를 대상관계이론에 근거하여 정의하였다. 문헌연구를 개관하면 투사적 동일시를 투사와 같이 보는 학자도 있고, 두 가지를 어느 정도 구분한 학자도 있다. Meissner(1980)는 투사에서 투사되어지는 것은 대상의 성질이나 대상의 속성에서 나온 것으로 속한다는 것(belonging to)으로 경험되며, 투사적 동일시에서 투사되어지는 것은 자기의 부분(part of the self)으로 경험되면서 동시에 동일시된다고 하였다(안이환, 2000 재인용). Kernberg(1987)는 투사적동일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첫째, 참아낼 수 없는 심리내적 경험의 양상이 대상을 향해 투사되고, 둘째, 투사된 내용과 공감을 유지하며, 셋째, 참아낼 수 없는 심리내적 경험에 반대되는 방어적인 노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상에 대한 통제를 시도하며, 넷째,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대상과의 실질적인 상호작용에서 투사되어진 것을 대상 속에서 유도해낸다고 하였다(안이환, 2000 재인용). 또한 투사적 동일시는 첫째, 자기의 부분을 투사하거나 제거하기, 둘째, 그것을 대상 내에서 발견하기, 즉, 실제로 타인이 그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마치 자신의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경험하기, 셋째, 투사된 대상을 수용하고 그 대상과 같이 되기의 세 가지 단계로 나타난다고 요약할 수 있다(임종렬, 1997).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자녀에 대한 꾸지람과 부모로부터의 꾸지람에 대한 경험을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 꾸지람의 의미를 탐구하기 위하여 내러티브탐구(narrative inquiry) 방법인 이야기하기와 다시이야기하기 절차를 따랐다(Clandinin & Conelly, 2000). 연구 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단편적인 사실들만을 나열해 줄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 실증주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자녀에 대한 꾸지람과 부모로부터의 꾸지람에 대한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여 그들의 경험을 총체적으로 드러내고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가장 적절한 방법이 내러티브(염지숙, 2003)라고 생각하였다. 내러티브는 인간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 중심이 된다(MacIntyre, 1981; Conelly & Clandinin, 1990).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을 내러티브로 살아가며, 내러티브의 입장에서 우리 삶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러티브 탐구

란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며, ‘이야기하기(story telling)’와 ‘다시이야기하기(retelling)’를 통하여 ‘경험의 의미(living)’를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reliving)’ 방법이라고 말한다(Clandinin & Conelly, 2000). 또한 내러티브 탐구자들은 인간의 경험을 연구하고 경험을 이야기로 표현하며(염지숙, 2003), 삼차원적 공간(three-dimensional narrative inquiry spaces)인 ‘시간성(temporality)’, ‘사회성(sociality)’, ‘장소(place)’ 내에서 경험을 연구한다(염지숙, 2009). 그 경험을 이야기로 표현할 때, 우리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기억 저편에 있는 과거의 사건들까지도 이야기하게 되며,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미래의 이야기 거리들을 제공해준다(염지숙, 2003).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의 자녀에 대한 꾸지람과 부모로부터의 꾸지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연구자로서 나의 이야기가 삼차원적 공간 안에서 어우러져 참여자들의 삶을 더 큰 맥락 안에서 조망할 수 있게 될 것이다(염지숙, 2009).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은 과거 어린 시절 자녀로서의 경험, 현재 부모로서의 경험과 미래에 하게 될 부모로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재구성해 나갈 것이다.

2. 연구절차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연구자인 나를 포함하여 세 명의 부모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를 자신과 동성인 자녀를 한 명 이상 둔 부모를 연구의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이는 이성 자녀보다 동성 자녀에게 자주는 꾸지람 속에서 부모 자신의 미해결된 갈등을 발견 할 수 있다는 것(Bettelheim, 1987)에 근거한 것이다. 첫 번째 부모는 2003년도에 결혼하여 동성 자녀 두 명을 두고 있는 엄마이며, 두 번째 부모는 1993년도에 결혼하여 동성 자녀 한 명과 이성 자녀 한 명을 두고 있는 아빠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자인 동시에 참여자인 나는 1996년에 결혼하여 한 명의 동성 자녀와 한 명의 이성 자녀를 두고 있는 엄마이다. 연구자는 연구에 앞서 연구의 목적과 절차 등을 설명하고 참여자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동의를 얻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참여자와 참여자 자녀의 이름을 모두 가명으로 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에 대한 기초 정보

구분항목	성별	나이	학력	혼인기간
참여자 J	여	40	대학원졸업	13년
H	여	36	대학원졸업	6년
K	남	46	대학원졸업	16년

2) 자료수집

자료는 2008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간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은 주로 연구자와 참여자의 일대일 대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대화는 한 달에 한 번씩 매회 약 2-3시간에 걸쳐 참여자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각 참여자들마다 4회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연구자는 그들과 함께 하며 대화를 녹음하고, 전사하면서 각 참여자의 내러티브를 정리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연구자의 저널, 이메일과 전화를 통한 참여자와의 대화가 사용되었다. 참여자들은 나의 옛 동료였으므로 우리는 이미 편안하고 신뢰로운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모임이 시작될 때 함께 다과를 하며 자녀를 키우는 기쁨과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모임이 대화의 형식을 취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한 질문을 묻기보다는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이전 모임 이후에 경험한 자녀에 대한 꾸지람을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그러면서 부모로부터의 꾸지람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3) 자료의 분석과 해석

이러한 방식으로 수집된 대화 자료들과 연구자가 연구하는 동안 썼던 저널을 통해 현장 텍스트(field texts)의 의미를 구성하였다. 연구자는 현장 텍스트를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내러티브 패턴, 내러티브 줄거리, 긴장감 등을 개인의 경험과 사회적 상황과 연결시켜 찾아내기 위해서 고민하였다. 내러티브 탐구에서 연구자는 연구자 자신의 과거와 현재 경험에 비추어 또는 다른 연구나 이론들과 비교하면서 현장 텍스트를 읽고 그것으로부터 연구 텍스트(research texts)를 구성하게 된다. 내러티브 탐구에서 연구자는 연구 텍스트에서 자신의 목소리와 참여자의 목소리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연구 텍스트에서 서명(signature)을 너무 세게 하여 ‘나’를 너무 많이 드러낼 때 연구 텍스트가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흐를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너무 참여자의 관점에서 쓰여질 수 있다(염지숙,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텍스트를 구성함에 있어 연구자인 나의 목소리와 나를 포함한 참여자들의 목소리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완전히 몰입하여 ‘읽고 다시 읽기’를 반복하였다. 또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 ‘거리두기’를 하며 연구자 혹은 참여자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완전히 몰입하여 읽고 다시 읽기와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 거리두기를 반복하며 자료를 읽으며, 연구문제에 부합하는 이야기들을 추려내어 계속해서 하나의 패턴으로 나타나는 같은 맥락의 이야기들을 함께 묶어 연구 텍스트로 구성하였다. 연구의 타당성과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여 연구 텍스트를 구성하고, 쓰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경험

이야기와 그 의미를 바르게 표현하고 있는지 참여자들은 매일을 통해 검토와 협의를 하였다.

IV. 이야기하기: 자녀에 대한 꾸지람과 부모로부터의 꾸지람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에 참여한 부모는 자녀에게 자주 하는 꾸지람은 어떤 것들이며, 그 때, 자신의 감정, 어조, 표정과 몸짓은 어떤 지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부모로부터 자주 들었던 꾸지람에 대한 기억과 그것에서의 감정을 떠올리고, 부모가 자신을 꾸짖을 때, 부모의 어조, 표정과 몸짓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1. J의 이야기

J는 동성 자녀 한 명(비니, 12세)과 이성 자녀 한 명(주니, 10세)을 두고 있는 결혼한 지 14년 된 엄마다. J의 이야기는 딸의 부정적인 면에 대한 이야기와 꾸지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주니는 비니의 심부름꾼입니다... 누나 비니는 동생 주니에게 우유를 사오라고 자주 시킵니다. 주니는 열 번에 여섯 번은 우유를 사다 주지만 나머지 네 번은 왜 나만 우유를 사와야 하나며 누나의 억지 부탁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비니는 우유뿐만 아니라 자기가 먹고 싶은 것(떡볶이나 과자, 아이스크림 등)이 있으면 동생을 살살 구슬러 사오도록 합니다. 비니의 협박이나 꼬임에 주니가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경우엔 비니는 할 수 없이 자신이 직접 사러 갑니다. 비니는 자기가 사온 것을 동생이 조금 먹으려 하면 선심 쓰듯 손뚱만 큼씩 주며 통제합니다. 동생의 심부름 거절에 대한 나름의 웅정입니다. 그러면 동생은 항의 합니다. 내가 사온 것은 마음대로 먹으면서 왜 누나는 내게 이렇게 조금씩만 주냐고, 비니는 당당합니다. '내가 사왔으니까. 당연한 거지!' 순진한 주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합니다(2008년 9월 19일, J, H 대화).

주니는 비니의 화풀이 대상입니다... 자기 뜻대로 뭐가 잘 되지 않으면 아무 잘못 없는 동생에게 시비를 겁니다. 특히, 엄마나 아빠에게 혼났을 때, 예민해진 비니는 동생의 행동을 트집 잡습니다. 억울한 주니는 누나에게 반항합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어느 한 쪽이 힘에서 밀리면 울기 시작합니다(2008년 10월 23일, J, K 대화).

주니의 물건은 마음만 먹으면 비니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니의 물건은 쓸모없어지기 전까지는 영원히 비니의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비니는 최신 MP3를 주니는 전자사전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주니는 누나의 MP3에 손도 대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니의 전자사전은 비니가 필요할 때마다 비니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비니는 주니의 물건 중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동생을 살살 구슬러 그 물건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찌면 전자사전도 아마 버지않아 비니의 것이 되어 있을 겁니다(2008년 9월 19일, J, H 대화).

제 눈에 이런 장면들이 자주 목격됩니다. 화가 나지요... 순진한 동생을 이용해 먹는 비니가 참 알뜰하게 느껴집니다. 화를 억누르다 어느 한 순간 비니에게 폭발합니다. '왜 동생 물건을 네 마음대로 가져오니!', '동생을 왜 그렇게 못살게 구니!' 혹은 '왜 그렇게 동생을 네 맘대로 하려고 하니!' 라고 욕박지릅니다. 딸을 혼낼 때, 큰소리는 기본입니다. 미간을 잔뜩 찌푸려 오른손 집게손가락으로 딸의 눈을 향해 삿대질합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으면 손바닥으로 등을 몇 대 때립니다(2008년 11월 27일, J, H 대화).

비니의 학업 성적은 중·상위권입니다. 성적에 대한 큰 욕심을 내지 않는 저로서는 만족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가끔 비니가 기대 이하의 점수를 받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심하게 걱정이 되면서 비니에게 생각하지 못했던 꾸지람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뭐가 될래?', '이 정도 밖에 못해?' 등의 비니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들을 하는 자신을 발견하곤 깜짝 놀랍니다(2008년 10월 23일, J, K 대화).

자녀에 대한 꾸지람을 이야기 하던 J는 자신의 부모로부터 들었던 꾸지람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다. 그 기억은 J의 이야기를 통해 형상화된다.

나에게는 네 살 아래인 여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은 내가 시키는 심부름을 곧잘 했습니다. 사실 온갖 협박과 꼬임이 동원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가끔 동생은 내가 시킨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엄마가 보지 않는 순간의 틈을 이용해 동생을 때리거나 무섭게 노려 보았습니다. 그러면 동생은 무서워서 심부름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2008년 10월 27일, J, K 대화).

동생은 귀엽고 양뿔같은 물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나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 보잘것없는 자기 물건과 동생 물건을 바꿔치기했다. 동생이 거부하면 놀러갈 때 데리고 가지 않는다고 협박하며, 조금만 빌려갔다 나중엔 돌려주거나 혹은 더 좋은 것으로 주겠다는 중의 온갖 회유책을 써가며 기어코 빼앗아 왔다(2008년 12월 20일, J, 저널).

엄마는 나의 이런 행동을 절대 모를 거라고 생각했다. 그뻔 정말 어렸으니까... 그런데 동생이 고자질을 했는지... 엄마는 뒤에도 눈이 달렸는지... 소머즈의 귀를 지니고 있었는지...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 엄마에게 혼나기 시작하면 동생에 대한 나의 온갖 비리들을 모두 꼬집어내며 나를 윤짜달짝 못하게 했다. 엄마는 항상 어린 동생 편이었던 것 같다. '악아빠진 것' 이라고 혼내며, 언니 자격이 없다고 하셨다. 정말 섭섭했다. 왜 나만 미워할까. 엄마는 나를 혼낼 때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큰소리와 함께 침 파편을 튀기며 혼냈다. 그리고 오른손 집게손가락으로 나의 미간을 향해 삿대질하던 모습. 정말 엄마가 무섭고, 미웠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으셨는지 커다란 손으로 나의 등을 몇 대 때리실 때도 있었다. 심지어는 빗자루를 거꾸로 잡고 때리기도 하셨다. 혹시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들었다. 그리고 보니 내가 비니를 혼낼 때 모습들이 나의 어린 시절 엄마가 나를 혼내던 모습과 거의 똑같다(2008년 12월 12일, J, 저널).

어릴 때부터 공부와는 답을 쌓고 살아서 부모님은 내게 공부하라는 말도 하지 않으셨고, 기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형제들이 워낙 부모님의 기대를 훌륭하게 충족시켜 주었기 때문에 나는 다행스럽게도 공부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나는 바다로 산으로 놀러 다닌 기억밖에 없습니다. 성적표를 받아가는 날... 이 정도면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엄마는 참 한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앞으로 뭐가 될래?' 라며 걱정스러워하셨습니다. 그 눈빛과 어조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커서 쓸모없는 사람이 될까봐 몹시... 우울해 했습니다(2008년 11월 27일, J, H 대화).

그녀가 딸 비니를 꾸짖을 때 꾸짖는 내용과 자신의 표정, 어조와 몸짓이 어머니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한편으로는 재미있어 하고, 또 한 편으로는 놀라워한다.

2. H의 이야기

H는 동성 자녀 큰 딸(연, 7세)과 작은 딸(현, 4세)을 두고 있는 결혼한 지 8년 된 엄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H에게 아침 출근 준비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다. 약간의 빗겨나감

은 시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마음은 불안하고 초초하다. 그 불안하고 초초한 마음은 H의 딸에게 ‘빨리 빨리 꾸지람’으로 전달된다.

아침 출근 준비할 때, 밥을 너무 천천히 먹는 큰 딸, 언 때문에 입에서 잔소리가 떠나지 않습니다. ‘빨리 빨리 밥 먹고 어린이집 가야지’라고 이야기하다가 그래도 먹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단호하게 ‘빨리 안 먹을래?’라고 꾸지람을 합니다(2008년 9월 19일, H, J 대화).

동생에 비해서 비교적 순한 큰 딸, 작은 딸은 고집이 세고 자기 맘대로 되지 않으면 울음바다를 만듭니다. 그 때마다 저는 큰 딸에게 ‘언니니까 네가 양보해라’라고 이야기 합니다. 저는 작은 딸보다 큰 딸을 주로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딸은 혼내보았자 네 살밖에 되지 않아 말귀를 알아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지러지게 울어 뒷감당이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2008년 10월 23일, H, J 대화).

평소 행동이나 말이 굹뚱 연이가 민첩하게 움직일 때가 가끔 있습니다. 장난감이나 학용품 같은 것을 동생과 같이 쓰라고 했는데 자기 것이라고 하며 진짜 날렵하게 낚아갑니다. 밥 먹는 것은 느린데 어떻게 이럴 때는 저렇게 빠를 수 있을까... 더 재미있는 것은 동생 현이가 그 빠른 언니보다 더 빨리 언니 것을 빼앗아서 꺾꽂이 도망간다는 겁니다. 뛰는 놈이 연이라면 나는 놈은 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현이를 혼내야 하는데 연이에게 동생에게 양보하라고 혼을 냅니다. 그런데 친정 언니는 저희 집에 놀러왔다가 이 장면을 보고 동생 현이를 혼내더라고요. 왜 언니 것을 빼앗아 가냐고... 아마도 저는 현이에게 대리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릴 때 오빠와 언니들에게 항상 양보만 했거든요. 빼앗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현이가 당차게 언니 연이 것을 빼앗아 오는 것을 보면 웃음이 나오고, 한편으로는 어디가도 지지는 않을 것 같아 안심이 돼요(2008년 11월 27일, H, J 대화).

자녀에 대한 꾸지람을 이야기 하던 H에게 어린 시절 엄마에게 들었던 꾸지람을 이야기해달라고 했다. H는 기억을 더듬어 가며 조용한 목소리로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뭐든지 천천히 하는 나. 엄마는 내가 아침 밥 먹는 모습을 보면 답답하게 여기시면서 큰 목소리로 ‘빨리 빨리 밥 먹고 학교 가야지’라고 혼내셨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때까지 혼났을 겁니다. 그리고 보니 내가 큰 딸을 혼낼 때, 엄마가 나를 혼낼 때 모습과 비슷하네요... 농사일을 하셨던 엄마는 늘 바쁘셨습니다. 언니들은 나이 터울이 많아서 학교와 직장에서 늦게 왔기 때문에 내가 여동생 두 명과 남동생 한 명을 주로 챙겨야 했습니다. 엄마는 발에 가면서 제게 ‘동생들 잘 돌봐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가셨습니다. 동생들이나 오빠와 가끔 싸움을 하면 엄마는 제게 큰 목소리로 ‘동생이니까 네가 봐주고 양보해라’ 아니면 ‘네가 여자니까 오빠에게 양보해라’라고 야단치셨습니다.

나보다 세 살 위인 오빠는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빠와 싸우면 어머니는 무조건 나를 비난하고, 동생이 양보해야 한다고 꾸짖으셨습니다. 성장과정에서 오빠가 나를 챙겨주지 않는다는 원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큰 딸은 제게 전폭적 지지와 신뢰를 받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녀 간 갈등 상황에서는 큰 딸보다 작은 딸의 편을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빠에게 들었던 감정이 큰 애에게 전이되면서 큰 딸에게 ‘네가 동생에게 양보해라’라고 꾸짖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2008년 12월 22일, H, J 대화).

H는 딸 연을 꾸짖는 내용이 자신의 엄마와 많이 닮아 있는 것을 이야기 하는 과정 중에서 깨닫는다. 한편으로는 딸 연을 꾸짖는 내용과 모습이 자신의 엄마와 다르다는 것도 깨닫는다.

나는 딸을 혼낼 때, 일그러지고 표독한 얼굴 표정입니다. 나의 엄마도 나의 모습과 매우 많이 닮아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딸을 혼낼 때, 평소보다 큰 목소리로 짧고 굵게 단호하게 말한다면, 나의 엄마는 나보다 고음으로 혼냈으며,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또 엄마는 장황하게 잔소리를 늘어놓았지만, 나는 단호하게 혼내는 편입니다(2008년 12월 22일, H, J 대화).

3. K의 이야기

K는 이성 자녀 딸(별, 13세)과 동성 자녀 아들(혁, 11세)을 두고 있는 결혼한 지 16년 된 아빠다. 아들에게 주로 하게 되는 꾸지람은 어떤 것들인지 K에게 이야기해달라고 했다.

아들 혁은 밥을 매우 급하게 먹습니다. 아들에게 항상 잔소리합니다. ‘천천히 먹어라. 잘 씹어서 먹어야 뼈가 굵어지고, 튼튼하게 자란다. 그래야 축구를 잘 할 수 있다.’ 라고... 어떻게 말을 해도 변하지 않는 아들. 축구와 연관 지어 이야기 하면 잔소리 듣는 순간만큼은 조심합니다.

혁이가 TV를 너무 많이 봐서 TV를 없앴습니다. 한 번 TV를 보기 시작하면 낮을 잃고 드라마 내용에 빠져듭니다. 이럴 때 꾸지람을 심하게 합니다. ‘너 또 드라마에 빠졌구나! 너 할 일 했어? 하고 보는 거야?’ 아들이 안했다고 대답하면 ‘당장 가서 공부해!’라고 소리를 칩니다(2008년 9월 16일, K, J 대화).

혁이는 자기 물건을 잘 잃어버립니다. 학용품은 물론이고 옷도 어딘가에 두고 옵니다. 심각한 것은 자신이 뭘 잃어버렸는지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정신 바짝 차려야지!’라고 혼냅니다. 혁이는 이런 잔소리를 너무 자주 들어... ‘아빠 나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애’라고 하며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던 아들이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많이 나아져 잃어버리는 횟수가 반으로 줄었습니다(2008년 10월 27일, K, J 대화).

자녀에 대한 꾸지람을 이야기 하던 K에게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들었던 꾸지람을 이야기해달라고 했다. K는 기억을 끌어낼 시간이 필요 없는 듯 했다. 격양된 목소리로 다소 급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제 아버지는 굉장히 밥을 급하게 드셨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급하게 먹습니다. 제가 급하게 밥을 먹는 것이 싫어서 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들이 이것을 꼭 닮아있습니다. 그래서 좀 심하게 아들을 꾸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아버지는 TV를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집이 시골이었던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아버지의 강압으로 시내에 있는 초등학교로 전학을 해야만 했고, 그 때부터 혼자 자취를 했습니다. 주말에 집에 가서 TV를 보고 있으면, 아버지는 당장 끄라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혼자 자취하는 초등학교생이 오랜만에 집에 와서 응석도 부리고 싶고, TV보면서 놀고 싶은 것은 당연한 건데 저의 아버지는 그것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항상 제게 ‘공부해라!’라고 잔소리 혹은 꾸지람을 하셨습니다. 친구와 논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TV앞에 앉아 있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아버지에게 혼내까봐서요...

제가 어렸을 때, 뭘 잃어버리고 집에 오면 아버지는 제게 ‘이 정신 빠진 놈아! 뭘에 정신을 두고 다니냐!’라고 심하게 저를 꾸짖으셨습니다. 참 가슴 아프게 저를 혼내셨습니다(2008년 11월 24일, K, J 대화).

그는 아들을 꾸짖을 때의 모습이 자신의 아버지와 너무나 닮아있는 것을 깨달으며 놀라워한다. 그리고 걱정스러워한다.

혁이는 욕을 참 많이 씹니다. 안 좋은 말을 쓰면 '나쁜 말! 나쁜 말 이야! 다른 친구가 누나나 네게 그런 말 하면 네 기분이 어떨겠니?' 라고 꾸짖습니다. ...제가 참 욕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도 어린 시절 친구들 만나면 그 욕을 그대로 씹니다. 사실 아들을 나무랄 것은 아닌데... 그렇게 됩니다. 제가 쓰는 욕은 제 아버지에게 다 배운 겁니다. 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시면 욕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니 제가 아버지에게 욕을 배운 것처럼 혁이도 은연중 제 욕하는 것을 배운 것은 아닐까하는 걱정이 듭니다.

또... 아버지는 술을 드시면 잔소리가 많아졌습니다. 주로 공부와 관련된 잔소리를 많이 하셨는데요... '앞으로 살아 나가려면 공부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공부 하지 않으면 굉장히 화를 내셨습니다. 공부를 못하면 나를 무시했으며, '이 멍청아!' 라고 하며 혼내셨습니다. '왜 너는 남들보다 못하나!' 라고 남들과 비교하며, '무조건 공부' 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이런 잔소리를 들어서인지 혁이에게 '공부'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공부하라는 잔소리가 싫어 공부하지 않는 것으로 반항했던 것처럼 아들 혁이도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 되네요(2008년 12월 29일, K, J 대화).

V. 다시이야기하기: 꾸지람의 의미에 대한 내러티브

자녀에 대한 꾸지람과 부모로부터의 꾸지람에 대한 J, H와 K의 이야기들로부터 '부모의 꾸지람을 빌려옴', '부모의 꾸지람을 변형시킴', '부모의 미해결 과제를 자녀에게 투사시킴', '꾸지람을 긍정적으로 변형시키기 시작함. 그리고 생활 속 조심스러운 실천'이라는 네 개의 내러티브 범주가 나타났다.

1. 부모의 꾸지람을 빌려옴

우리는 성장하면서 세상을 대하던 부모의 방식, 우리를 대하던 부모의 태도를 빌려와(Missildine, 1963) 나의 것으로 사용한다. 또 우리는 부모의 버릇, 말하기, 억양 등과 같은 특징들까지도 동일시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한다(Hinshelwood, 1996).

J, H와 K는 자녀에 대한 꾸지람과 부모로부터의 꾸지람을 이야기하면서 자녀를 꾸짖을 때의 모습이 이들의 부모가 자신을 꾸짖을 때의 모습과 매우 닮아있음을 발견하였다. 또 이들은 부모로부터 꾸짖는 내용, 몸짓, 찌푸린 표정과 목소리의 톤 등을 빌려와서 자녀를 꾸짖을 때 사용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와 관련된 J, H와 K의 이야기이다.

J: 초등학교 때 성적표를 들고 오면 엄마는 한심스러운 눈빛과 가라앉은 목소리로 내게 '앞으로 뭐가 될래?'라고 하셨다. 그 때 나는 내가 참 쓸모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우울해했다. 그런데 내가 비니에게 엄마와 똑같은 꾸지람을 하고 있으니... 비니도 나와 비슷한 느낌을 가졌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좋지 않다. 비니가 기대 이하의 성적을 받고 오는 경우, 한심스러운 눈빛과 낮은 목소리 톤으로 나는 비니에게 '이렇게 해서 앞으로 뭐가 될래?', '이 정도 밖에 못해?' ... 라고 꾸짖는다(2008년 11월 30일, J, 저널).

내가 동생을 못살게 굴면 엄마는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며 오른손 집게손가락으로 나의 미간을 향해 샅대질하셨다. 나 또

한 딸을 꾸짖을 때 큰소리로 옥박지르며 미간을 잔뜩 찌푸려 오른손 집게손가락으로 딸의 눈을 향해 샅대질한다(2008년 10월 23일, J, 저널).

H: 지금도 주변 사람들이 제 행동이 느리다고 핀잔을 줍니다. 어렸을 때는 더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엄마는 '빨리 해라'라는 잔소리를 늘 제게 하셨습니다. 마치 제가 큰 딸에게 '빨리 빨리 해라'라는 잔소리를 늘 하게 되듯이요...(2008년 12월 22일, H, J 대화).

엄마는 제가 동생들과 싸우면 큰 목소리로 '동생이니까 네가 봐주고 오빠에게 양보해라'라고 꾸짖으셨습니다. 또 오빠와 싸우면 '네가 여자니까 오빠에게 양보해라'라고 야단치셨습니다. 항상 제게 '양보'를 강조 하셨습니다. 이 때문인지 몰라도 잘못된 작은 딸이 했지만, 큰딸에게 '언니니까 네가 동생에게 양보해라'라고 꾸짖는 것 같습니다(2008년 12월 29일, H, J 대화).

K: '공부'를 유독 강조하셨던 아버지. TV를 볼 때나 친구들과 놀 때도 아버지 눈치를 항상 봐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가 '공부해라!'라고 꾸짖는 목소리가 생생합니다. 어렸을 때는 TV드라마 실컷 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저는 아버지가 공부하라고 잔소리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했는데 아들 혁이가 TV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당장 가서 공부해'라고 아버지처럼 큰 소리로 꾸짖게 됩니다. 아들 혁이가 TV보는 것이 너무 싫어서 최근에 TV를 없앴습니다. 아버지보다 제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TV를 없애지는 않았거든요(2008년 11월 24일, K, J 대화).

J, H와 K는 어린 시절에 익힌 부모의 꾸짖는 태도를 이어받아서 자신의 자녀를 꾸짖을 때에 고스란히 적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태도들은 부모의 태도이지 자신의 태도는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마치 부모가 자신을 꾸짖을 때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자녀를 꾸짖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인식과 발견을 하는 과정에서 J는 어린 시절 부모의 꾸지람으로 인해 경험했던 우울감을 자신의 자녀도 경험했을 것에 대해서 미안해했으며, H는 꾸지람해야 할 대상을 면죄부 시키고 엄한 대상을 꾸짖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K는 부모의 꾸지람으로 인한 상처보다 더 큰 상처를 자녀에게 주고 있을 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게 되었다.

내러티브 대범주중 하나인 '부모의 꾸지람을 빌려옴'은 다음 J, H와 K의 이야기들로부터 '투사된 내재 과거아에 대한 부모구실', '익숙함의 수용', '자녀에게 안전한 울타리 제공'이라는 세 개의 내러티브 소범주를 구성할 수 있다.

1.1 투사된 내재 과거아에 대한 부모구실

아동기란 일반적으로 우리가 더 이상은 부모의 지도와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고, 한 인간으로서 독립하여 살 수 있게 될 때 끝나는 성장과 훈련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어른으로서 행동할 때 아동기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부모 노릇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부모가 어린 시절의 우리를 대하던 감정이나 태도를 이용한다(Missildine, 1963). 또한 자신의 자녀에게 부모 노릇을 할 때도 어린 시절 부모가 우리를 대하던 감정과 태도를

이용하게 된다. 즉, 어린 시절 나의 모습과 유사한 행동(특히, 부모에게 꾸지람을 들었던 것과 유사한 행동)을 하는 자녀를 보면, 우리는 자녀를 통해 어린 시절에 내재된 과거아(어른이 된 지금도 자신의 삶 안에 그대로 남아서 지속되고 있는, 자신이 과거에 거쳐 온 어린이의 모습을 말한다: Missildine, 1963)를 만나게 된다. 이 순간 자녀에게 자신의 내재 과거아를 투사시키게 된다. 그리고 어린 시절 부모가 나를 꾸짖었던 태도들을 빌려와 마치 내가 나의 부모인 냥 나의 내재 과거아를 투사시킨 자녀를 꾸짖게 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J와 H의 이야기이다.

J: 엄마에게 혼났던 것들이 아직 내 마음에 엄마에 대한 증오, 회한, 동생에 대한 죄책감과 같은 감정으로 남아있는 것 같다. 비니의 행동을 통해 어린 시절 나를 만났던 것 같다. 이상한 것은 엄마의 모습으로 비니를 꾸짖지 말아야하는데 똑같이 혼내고 있다는 것이다. 어찌면 제 동생에 대한 죄책감을 아들 주니를 보호하며 속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엄마에게 '저는 동생에게 이제 그러지 않아요, 저와 비슷한 행동을 하는 누나를 혼낼 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 됐어요'라고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을까하는 생각을 해 본다. 비니를 혼내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비니에 대한 미안함과 측은함으로 비니의 표정을 살핀다. 마치 어린 시절 엄마에게 혼나 방에 혼자 틀어박혀 우울해 하던 불편한 나를 보는 것 같아 안쓰러운 마음이 든다. 비니를 꼭 껴안아 준다. 어린 시절 나를 안아 주듯...(2008년 12월 5일, J 저널).

H: 엄마와 저는 표현 방법만 다르지 혼내는 내용이 닮았네요. 기다려주지 않고, 재촉하고, 성급하게 야단치는 모습이 엄마를 모델링한 것 같아요. 제게 좋지 않은 면이 딸의 모습 속에서 보이면 나의 감정이 딸에게 투사되어 딸을 혼내면서 나 자신을 혼내는 것 같아요 (2008년 12월 22일, H, J 대화).

이처럼 부모의 꾸지람을 빌려와서 자녀에게 자신의 내재 과거아를 투사시켜 부모구실을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1.2 익숙함의 수용: 두려움, 자신 없음

우리는 어린 시절 익숙해진 분위기에 맞추어 살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한다(Missildine, 1963). 설령 그 익숙한 분위기가 다소 불편하다 해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게 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H의 이야기이다.

그녀에게 오빠와 동생들을 위해 양보를 강조하신 어머니. 이 때문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고, 타인에게 거절과 자기주장을 잘 하지 못하고, 타인의 눈치나 의식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된 것 같다고 말한다. 이게 싫어서 어머니처럼 큰 딸을 꾸짖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어느 순간 큰 딸에게 '동생에게 빌려줘', '동생에게 양보해'라고 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고 한다. 이렇게 된 이유가 아마도 자신의 아동기 때, 꾸지람을 들으면서 '꾸지람'에 대한 익숙한 패턴이 자리 잡아서가 아닐까요...라고 말한다. 그리고 내 자체가 '거절',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 꾸짖는 패턴이 나쁘다는 것을 알지만 익숙한 것을 수용해 버리고 새로운 형태의 꾸지람을 형성하는 것이 엄마를 거절하는 것 같아 두려운 느낌이 든다고 말한다. 또, 그 패턴을 내가 깨뜨려서 다른 방법으로 변형시켜 꾸짖는 것이 두렵고, 자신이 없다고 말한다(2008년 12월 22일, H, J 대화).

우리에게는 지난날 가정의 분위기와 우리를 대하던 우리 부모들의 태도를, 설령 그것이 해악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그대로 재현하려는 지속적인 경향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부모의 태도가 그릇되었음을 깨달은 다음에도 여전히 '그것이 옳다고 느껴진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오래되고 해악을 끼치는 부모의 태도에서 어린 시절에 맛보았던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Missildine, 1963). 우리는 이러한 '불편한 안전감'을 찾기 위해 '익숙함을 수용'하게 된다. H는 자녀를 꾸짖는 방식을 새롭게 변화시키지 못하고 과거의 방식 사이에서 갈등한다. 여전히 과거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느끼고 자신 없어한다. 그러다가 새로운 방식으로 자녀를 꾸짖으려 할 때 부자연스러워하고, 어색해하는 자신을 만나게 된다. 이처럼 '익숙함의 수용'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부모의 꾸지람을 빌려오는 지에 대해 일부 이해할 수 있다.

1.3 자녀에게 안전한 울타리 제공

한편 부모의 꾸짖는 태도 중 우리가 본받아야 할 건전한 것들이 있다. 이러한 태도들은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부모가 된 지금에도 '편안한 안전감'을 제공해준다. 자녀에게 안전감을 주었던 부모의 꾸지람은 자녀가 부모가 된 후, 그들의 자녀에게 안전지대를 만들어줄 때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안전감을 느끼게 했던 부모의 꾸지람은 자녀에게는 필요한 제한이었으며, 일종의 규칙과 규범들로서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J, H와 K의 이야기이다.

H: ...어머니의 꾸지람 속에서 자랐지만, 그것이 나를 그렇게 나쁜 방향으로 성장시키지 않았고, 어느 정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했기 때문에 꾸지람을 새롭게 변형시킬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오빠와 동생들을 위해 양보를 강조하셨고, 저는 이것을 따라야만 했어요. 그래야 저는 '안정'했고,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동료들에게 양보하는 게 오히려 편했어요. 그러다보니 이제까지 누군가에게 크게 미움 받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손해 본다는 느낌은 가끔 들지만요. 하지만 이기적으로 행동해서 느끼는 불편함보다는 오히려 낫지요. 때로는 양보하는 것이 이기는 것일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일까요? 딸 연이에게 '동생에게 양보하라'는 이야기를 자주하게 돼요. 우리 연이도 저의 이런 모습을 닮기를 바래요. 그게 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주변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조금 더 배울고... 이게 예상사는 지혜인 것 같아요. 연이가 이런 것을 배웠으면 좋겠어요(2008년 12월 22일, H, J 대화).

J: 저도 엄마처럼 딸 비니에게 동생을 잘 보아라라는 꾸지람을 잘 해요. 제게 '돌봄'이라는 의미는 특별한 것 같아요. 엄마는 제가 질투할 정도로 '동생 아끼고 돌봐주어라'라는 꾸지람을 자주 하셨어요. 때로 그게 싫어 벗어나기도 했지만... 그러면 미움을 받았죠. 동생을 돌보아야 제가 인정받고, 편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을 터득한 후, 저는 궁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동생을 잘 볼 수 있을까? 이것은 곧, 어떻게 하면 엄마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궁리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얻은 방법은 동생과 싸우지 않는 것. 동생을

혼자 두지 않고 데리고 다니는 것. 동생을 위험한 상황에서 보호해주는 것. 동생에게 양보하는 것 등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엄마는 저를 믿어주셨고... 아빠도 저를 괜찮은 딸로 봐주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동생을 돌보는 것이 몸에 배었고, 동생의 마음까지 돌보려고 노력했어요. 슬퍼 보이거나 화난 것 같은면 위로해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그래서 제가 상담을 전공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제 도움이 필요한 동생 돌보듯이 도움필요한 사람들 돌보기 위해서... 그리고 보니 엄마의 꾸지람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준 것 같아 고맙네요. 그래서 비니에게도 동생 잘 도와라라는 꾸지람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이 꾸지람이 싫을 때도 있었지만, 비교적 만족스러운 지금의 제 모습을 있게 해 준 것처럼 비니도 그렇게 될 거라는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2008년 12월 22일, J, H 대화).

K: ...아버지의 지켜온 공부하라는 꾸지람. 저는 TV 보기 위해, 밖에 나가 놀기 위해 그리고 아버지의 잔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하게 되었고, 전문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성취감도 느끼고요. 아버지는 이제 저를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을 때, 이제 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제가 하고 싶어서 공부합니다. 어쨌든 아버지의 꾸지람이 울타리 역할을 해 주셨고, 지금의 저를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혁이에게도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이루게 해준 것을 아들에게도 이루게 해주고 싶습니다(2008년 12월 29일, K, J 대화).

어느 부모에게든 자녀에게 '해라 혹은 하지 말아라'고 하는 제한들이 있다. 그 제한은 자녀가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려면 따라야 하는 규칙들이다. 때로는 그 규칙들이 통제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안전한 울타리' (Wallbridge & Davis, 1981) 역할을 해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안전한 울타리 역할을 해주면 자녀는 그 안에서 자유롭고, 보호받는 느낌을 갖게 된다. 후에 자녀가 부모가 되어 자신의 자녀에게도 어린 시절 자유롭고 보호받았던 안전지대를 만들어 주기 위해 부모의 꾸지람을 빌려와서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부모의 꾸지람을 변형시킴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녀에 대한 꾸지람은 부모의 꾸지람으로부터 항상 빌려오기만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세 부모의 꾸지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부모의 꾸지람을 변형시켜 자녀에게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이에 대한 J, H와 K의 이야기이다.

J: 어렸을 때, 엄마와 함께 목욕을 가는 것이 참 싫었습니다. 엄마는 저의 몸매를 온 힘을 다해 밀었습니다. 얼마나 아프던지... 제가 아프다고 울먹이면 엄마는 눈을 흘기며 저를 야단치셨습니다. '이 정도도 못 참니! (다른 아이들을 가리키며) 저 아이들은 엄마가 밀어줄 때 조용히 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참지 못하니?'라며 옆에 앉아계신 아주머니들이 다 들을 정도로 혼내셨습니다. 얼마나 부끄럽던지... 어린 시절 저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제가 제 아이들과 함께 목욕탕을 가게 되면 절대 몸매를 밀지 않겠다고요... 이 때문인지 딸 비니와 함께 동네 사우나를 가면 비니의 몸매를 제가 먼저 밀어주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가끔 비니가 먼저 밀어달라고 하면 살살 밀어주며 '아프지 않니?'라고 자주 확인하게 됩니다(2008년 12월 22일, J, H 대화).

H: 엄마는 내가 밥을 늦게 먹으면 '너 이렇게 해서 다른 것은 어떻게 할래?'라고 하시며 혼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밥 늦게 먹는 것을 갖고 혼내시다가 나중에는 '약착같은 마음이 없으니까 모든 게 다 그렇다'라고 하시며 다른 레파토리까지 장황하게 들추어내며 구구절절 혼내셨습니다. 아마도 엄마의 이런 꾸지람이 나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엄마는 내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겠지만... 엄마의 이런 꾸지람은 나를 주눅 들게 하였고, 자괴감마저 들게 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몰라도 딸 연이를 혼낼 때는 문제 행동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합니다. 나와 같은 상처를 딸 연이에게 똑같이 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2008년 12월 22일, H, J 대화).

K: 혁이는 욕을 참 많이 씁니다. 안 좋은 말을 쓰면 '나쁜 말! 나쁜 말이야!' 다른 친구가 누나나 네게 그런 말 하면 네 기분이 어떻겠니?'라고 꾸짖습니다. ...제가 참 욕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도 어린 시절 친구들 만나면 그 욕을 그대로 씁니다. 사실 아들을 나무랄 것은 아닌데... 그렇게 됩니다. 제가 쓰는 욕은 제 아버지에게 다 배운 겁니다. 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시면 행동이 거칠어지셨습니다. 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가끔 가정폭력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이런 행동이 이해가 되고 측은하게 느껴지지만 어린 시절 저는 아버지를 증오했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도 술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폭력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의 폭력만큼은 따라하지 않겠다고 제 자신에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2008년 12월 29일, K, J 대화).

부모의 어떤 행동으로 인한 상처가 너무 깊어 그것만큼은 부모를 닮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그리고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그 결심을 실행한다. 또한 부모의 꾸지람 중에서도 어떤 것만큼은 '나는 이다음에 커서 부모가 되면 자식을 절대 이렇게 혼내지 말아야지'라고 결심한 것들이 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생활에서 실행함으로써 자녀를 꾸짖을 때 부모의 꾸지람을 변형시켜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J, H와 K는 부모의 꾸지람으로 인한 심리적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이야기한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심리적 상처들은 의식화된 것들이며, 의식화된 상처는 이미 치유를 향해 길을 떠났다. 하지만 우리의 상처 중 많은 부분은 아직 무의식 속에 남아 존재하고 있다. 어떤 상처는 무의식 속에 영원히 갇혀 우리를 순간순간 고통스럽게 한다. 하지만 어떤 상처는 우연한 기회를 통해 의식화되는데, 자녀를 꾸짖는 상황이 그 기회일 수 있다. Bettelheim(1987)은 자녀를 꾸짖을 때 부모 자신의 미해결된 갈등을 자녀에게 투사한다고 하였다. 이때 부모의 행동 원인을 검토한다면 해결하지 못한 유아기의 미해결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즉, 무의식 속에 갇혀있던 미해결된 갈등이 자녀에 대한 꾸지람을 통해 드러내며 의식화되기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3. 부모의 미해결 과제를 자녀에게 투사시킴

부모의 미해결 과제는 자녀와의 부정적 상호작용 즉, 꾸지람을 통해서 자녀에게 '투사'된다(Bettelheim, 1987). 이 순간 부모의 미해결 과제는 그 형태를 드러내며 무의식적 상

쳐는 서서히 의식화되기 시작한다. 이에 대한 J, H와 K의 이야기이다.

J: 어머니는 나보다 여동생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았다. 그 때문에 질투를 많이 느꼈다. 어머니는 나에게 '네가 언니니까 동생에게 양보해야 한다', '혼자 놀러가지 말고 동생 데리고 다녀라'라고 항상 잔소리하셨다. 내게 동생은 어머니 사랑에 대한 경쟁자 혹은 자유로운 활동의 방해자였던 것 같다. 그래서 어린 시절 동생이 미워져 못살게 굴었고, 동생 물건 중 탐나는 것이 있으면 마음대로 가져온 것 같다. 아마도 나는 그렇게 해서라도 빼앗긴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동생 때문에 구속받았던 자유를 보상받으려 했던 것 같다. 이 때문인지 비니가 주니 물건을 가져오거나 주니를 자기 맘대로 하는 것을 보면 비니의 마음을 따뜻하게 다독여주지 못하고, 어머니가 나를 혼냈던 것처럼 비니를 혼내는 것 같다. 만약 어머니가 내 마음을 좀 알아주고, 내게 사랑을 표현해 주었더라면 내가 비니를 대하는 모습이 지금과는 다르지 않았을까...(2008년 12월 23일, J, 저널)

H: 엄마는 제가 잘못을 크게 하지 않았는데도 동생들과 싸워도 '네가 양보해라', '오빠와 싸워도 '네가 양보해야 한다'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이래서일까요? 잘못은 작은 딸이 했지만, 큰딸에게 '네가 양보해라'라고 항상 꾸짖는 것 같습니다. 큰 딸의 섬세한 마음을 이해는 하지만, 표현하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엄마가 조금이라도 제 편을 들어주었다면, 아마 저는 지금과는 다른 모습일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고, 자기주장도 잘하는... 큰 딸에 대한 꾸지람도 다르게 나타났을 듯합니다. 양보하라는 잔소리보다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너는 최선을 다했어. 동생이 너를 힘들게 했구나...'라고 이야기 해주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2008년 12월 22일, H, J 대화).

K: 제 아버지는 TV를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항상 제게 '공부해라!'라고 혼내셨습니다. 아들 형이가 드라마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많이 보는 것도 아닌데 왜 그 모습이 그렇게 싫게 느껴지는지... 드라마를 재미있게 보는 형이에게 '당장 가서 공부해!'라고 소리칩니다. 사실 마음에서는 이게 아닌데...라고 이야기하지만, 욕은 이미 나가 있습니다. 아들은 참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으며 자기 방으로 조용히 들어갑니다. 아들이 얼마나 제가 미울까요? 제가 어린 시절 TV를 보지 못하게 하는 아버지를 미워했듯이 저를 미워할 겁니다. 아버지께 제 마음을 조금만 알아주었다면... 아버지가 저와 함께 TV를 보며 함께 이야기했던 경험이 있었더라면... 아들 형이에게 이런 아버지가 될 수 있었을 텐데... (2008년 11월 24일, K, J 대화)

J와 H는 딸을 비난할 때, 자신의 어머니와 같이 말하고 있으며, K는 아들과의 부정적 상호작용에서 자신이 어릴 때 아버지와 관계에서 이루어진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미해결 과제를 자녀에게 투사적 동일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미해결 과제들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악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아버지에게 대한 해소되지 않은 적개심은 자녀에게 꾸지람을 통해 투사됨으로써 부자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고, 어머니로부터 애정욕구를 충족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녀의 애정욕구에 대해 비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인 꾸지람으로 반응할 수 있다.

이처럼 자녀를 꾸짖는 상황에서 부모는 자신의 미해결 과제 즉, 자신의 부적합성이나 능력에 대한 불안감을 자녀에게 투사하게 된다(Bowen, 1978). Bowen(1978)은 이를 가족투사 과정(family projection process)이라고 하였다. 가족투사와

정이란 어떤 세대에서 충족되지 않은 자기분화에 의해 야기된 불안을 다음 세대의 희생양과 융합하려는 움직임으로써 다세대간 가족구성원이 병리적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불안을 세대간 전수하는 것이다. 이런 역사적 반복은 '학습'과 같은 직접적인 방법이나 '불안'이나 '양육방식'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전수된다(Gurman & Kniskern, 1991).

한편, 누군가의 투자를 받는 사람에게는 고통, 무기력, 두려움, 자기에 대한 경멸감 등과 같은 정서적 반응이 일어난다(Casement, 1991). 즉 부모의 투자를 받는 어린 자녀는 이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불행하게도 어린 자녀는 이러한 정서와 접촉하는 것을 잘 다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서는 부모처럼 자녀에게도 똑같은 심리적 상처를 주게 된다. 때로 어린 자녀는 부모에게 이런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면서 심리적 상처로 남게 될 것을 저항하기도 한다. 하지만 부모는 자녀의 이런 반응을 건강하게 '안아주기'(Wallbridge & Davis, 1981) 하는 것이 어렵다. 왜냐하면 자녀가 저항하는 그 정서는 부모에게도 미해결된 과제이며, 심리적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정서를 건강하게 안아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자녀는 자신의 부모와 유사한 미해결 과제와 같은 심리적 상처를 지니게 된다. 어쩌면 '그 미해결 과제'와 '그 심리적 상처'는 우리의 부모로부터 전해져 온 것일 수 있다.

4. 꾸지람을 긍정적으로 변형시키기 시작함. 그리고 생활 속 조심스러운 실천

J, H와 K는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로부터 받은 심리적 상처를 조금씩 의식화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준 부모를 원망하며, 어린 시절 두려워서 감히 부모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 '나를 그렇게 아무렇게나 대하지 마세요', '내가 진심으로 뭘 원하는지 제발 좀 알아주세요', '제발 나를 인정해주세요', '나만 사랑해주세요'를 표현하게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자녀에게 부모의 꾸지람을 건강하게 변형시킨 꾸지람을 하기를 바랐다. 그 바람은 이들의 생활 속 여러 장면에서 조금씩 그리고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은 이에 대한 J, H와 K의 이야기이다.

J: 며칠 전 비니와 주니는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왔다. 주니에 비해서 결과가 좋지 않은 비니는 시무룩해 있었다. 마음 안에서 들려오는 따뜻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보았다. '어린 시절 엄마가 나를 동생과 비교하며 이야기했을 때 나는 정말 슬펐다. 그리고 그 정도 밖에 못하니? 라는 꾸지람을 들을 때 어디론가 영영 사라져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런 꾸지람은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 비니에게는 그런 꾸지람을 하면 안된다. 어린 시절 내가 듣고 싶었던 꾸지람을 나만의 목소리로 딸 비니에게 해야 한다.' 이제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따라보려 한다. 축 처진 비니를 안아주며 '성적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아서 속상하구나. 하지만 이만큼 해낸 비니가 엄마는 자랑

스럽다. 그리고 너는 열심히 했어. 다음번에 더 노력하면 되는 거야. 고생했다. 비니야 라고 이야기 해 주었다. 비니는 약간 어색해하는 것 같았다. 나의 바뀐 태도에... 주춤거리다가 “엄마 고마워요”라고 말하며 안겨왔다(2008년 12월 30일, J, 저널).

H: 사실 꾸지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뜨끔한 적이 많았습니다. 연이가 늦게 밥 먹는 것을 애써 못 본 척 하며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야기하다보니 연이를 다그치는 순간이 밥 먹는 것과 많이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연이가 밥 먹을 때 의식적으로 혼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연이의 밥 먹는 습관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내가 좋게 보려고 해서 그렇게 보이는 건가요?(2008년 12월 22일, H, J 대화).

K: 꾸지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버지처럼 아들 혁이를 혼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제 자신에게 놀랐습니다. 내 아버지의 좋지 않은 모습이 내 안에 있었고, 그것을 내 아들에게 답습하고 있었다니... 반성 많이 했습니다. 며칠 전 혁이가 놀다 학원을 가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혁이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혁이는 놀다가 학원갈 시간을 놓쳤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더군요. 조용히 혁이를 타일렸습니다. “다음부터는 해야 할 일을 잊어서는 안된다” 라고요. 아마도 혁이는 제게 크게 혼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 의아해 했을 겁니다. 저도 이런 제 자신이 생소했으니까요. 하하하- 이리다 제가 예민해 있을 때, 혁이에게서 저와 닮은 모습들(무엇을 잊어버리거나 공부에 관심 두지 않고 놀려고만 할 때)을 발견하면 이전의 제 모습 아니, 아버지가 저를 혼내던 그 모습으로 혁이를 또 꾸짖겠지요? 그러면 안되는데...(2008년 12월 29일, K, J 대화).

J, H와 K는 자녀에 대한 꾸지람과 부모로부터의 꾸지람을 이야기하면서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의 꾸지람으로 인한 심리적 상처를 좀 더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다. 또한 자녀에게는 그들이 받았던 심리적 상처를 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된다. 그들은 부모의 꾸짖는 모습을 변형시키기도 하지만, 그대로 답습해서 사용하고 있음도 깨닫게 된다. 이러한 인식, 바람과 깨달음이 부모의 꾸지람으로부터 자녀에 대한 꾸지람을 긍정적으로 변형시키게 하였으며, 이것을 생활 속에서 조심스럽게 실천하게 한다.

그러나 삶의 방식에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기존의 방식들을 폐기 혹은 수정하는 것인데, 이는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 자녀는 부모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 거부적 태도를 보일 수 있으며, 부모는 자신의 방식을 고수하고자 하는 보수적 태도를 보일 수 있다. 부모와 자녀 모두 어려움과 망설임, 어색함과 미숙함을 경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시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실천했을 때 그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어 용기를 얻어가게 될 것이다.

VI.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자녀에 대한 꾸지람과 부모로부터의 꾸지람에 대한 경험과 그 의미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

해 본 연구에 참여한 세 부모 J, H와 K의 자녀에 대한 꾸지람과 부모로부터의 꾸지람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그들이 자녀를 꾸짖을 때, 부모가 그들에게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어조와 심지어 동일한 말을 사용하며 자녀에게 그대로 재현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어린 시절 부모의 꾸지람으로 인해 그들이 상처받았듯이, 자녀를 꾸짖을 때 그들의 자녀 또한 상처받고 있는 것에 대한 통찰도 할 수 있었다. 또한 자녀에 대한 꾸지람을 긍정적으로 변형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J, H와 K의 자녀에 대한 꾸지람과 부모로부터의 꾸지람에 대한 경험의 내용을 크게 네 가지로 범주화하였다. 우선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자녀에 대한 꾸지람은 이들 자신의 것이라기보다는 투사된 내재 과거아에 대한 부모구실, 익숙함의 수용, 그리고 자녀에게 안전한 울타리를 제공하기 위해 ‘부모로부터 빌려온 것’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부모의 꾸지람을 변형’시켜 사용하기도 하며, ‘부모의 미해결된 과제를 자녀에게 투사’시키며 자녀를 꾸짖기도 하였다. 그리고 꾸지람을 ‘긍정적으로 변형시키며 생활 속에서 조심스럽게 실천하고 있음’도 발견할 수 있었다.

J, H와 K의 자녀에 대한 꾸지람과 부모로부터의 꾸지람에 대한 경험들을 토대로 꾸지람을 긍정적으로 변형시키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첫째, 자녀의 특정 태도에 대해서 정도 이상으로 꾸짖을 때, 어린 시절 부모가 나에게 자녀의 특정 태도와 유사한 태도에 대해 비난한 적이 있는지, 그것으로 상처받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부모의 꾸짖는 태도로 자녀를 비난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자녀의 특정한 태도에 대해 우리가 왜 그토록 강한 부정적 반응을 하는지 자문해본다면, 그 특정 태도는 자녀의 문제라기보다 나 자신의 ‘미해결 과제’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런 기회를 통해 나 자신의 ‘미해결 과제’를 탐색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자녀에 대한 꾸지람을 긍정적으로 변형시킬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둘째, 우리는 부모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 우리가 평범한 인간이듯 우리의 부모들 역시 우리 자신과 마찬가지로 그들 나름의 미해결된 문제와 심리적 상처를 지니고 사는 평범한 인간임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수용’은 우리의 불만족스러운 면들에 대해 부모를 탓하는 것을 멈추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녀에게 부모역할을 하면서 계속해서 해악을 끼치는 태도들로 자녀를 괴롭히지 않도록 도울 것이다. 셋째, 우리가 사용하는 꾸지람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 우리는 부모의 다른 태도들과 함께 꾸짖는 태도들도 내재화하였다. 우리 자신의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태도들이 사실은 부모로부터 ‘빌려’온 것이라는 점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J, H와 K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녀를 꾸짖는 태도들이 자신의 창작물이 아

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굳이 이 태도들을 사용할 필요가 없음도 알 수 있었다. 꾸짓는 태도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점차 '부모의 것'에서 '나만의 것'으로 '긍정적으로 변형시킨 꾸지람'으로 자녀를 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긍정적으로 변형시킨 꾸지람을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인내와 노력은 필수다. 가끔 변형시킨 꾸지람이 낯설어서 불안감과 이질감을 느낄 수 있다. 이 때문에 과거의 꾸짓는 태도로 회귀하려 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다면 회귀하려는 욕구는 더욱 강력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자녀를 꾸짖을 때 자신의 목소리, 억양, 태도와 내용 등을 규칙적으로 기록하고 진척 상황을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잔재는 늘 존재한다. 하지만 빠른 시간 안에 다시 '긍정적으로 변형시킨 꾸지람'으로 복귀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자녀는 보다 더 건강하게 성장할 것이며, 우리는 자신의 미해결 과제를 점차 해결하며, 심리적 상처를 치유해 나갈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나는 참여자인 동시에 연구자였다. 이는 연구자인 나로 하여금 참여자들이 이야기 하는 부모로부터의 꾸지람과 자녀에 대한 꾸지람의 의미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준 동시에 참여자들이 경험한 꾸지람에 대한 익숙함 때문에 기계적 시각과 질문을 반복하게 한 제한점이기도 했다. 둘째, 본 연구는 이성 자녀보다 동성 자녀에게 자주하는 꾸지람 속에서 부모 자신의 미해결된 갈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Bettelheim, 1987)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를 자신과 동성인 자녀를 한 명 이상 둔 부모에 한정하여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이성 자녀에 대한 꾸지람과 이성 부모로부터의 꾸지람에 대한 경험은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대한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셋째, 부모로부터의 칭찬, 격려와 지지 등과 같은 긍정적 경험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재현되는지에 대한 후속연구를 기대해 본다.

본 연구를 위한 부모들과의 대화를 통해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의 꾸지람으로 인해 이들이 경험했던 무의식적 상처를 탐색해보고, 그 상처가 현재 이들의 삶 특히,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들은 자녀에 대한 꾸지람과 부모로부터의 꾸지람에 대해 이야기하며, 두 아이들의 부모로서 자신의 자녀를 꾸짖는 모습이 그들에게 기억될는지 생각해 보는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경험'이 되었음에 중요한 의미를 두었다.

그리고 J의 딸 비니, H의 딸 연과 K의 아들 혁이가 훗날 부모가 되었을 때, 그들의 자녀에게는 부모인 우리 자신보다

좀 더 '긍정적으로 변형시킨 꾸지람'을 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들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J, H와 K가 본 연구에서 얻을 수 있었던 깨달음은 자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교회 일 때문에 정말 너무나도 바쁘셨죠. 얼마나 바쁘는지 단 한 번도 딸인 나에게조차... 사랑한다고 말해 줄 시간이 없었죠. 어머니는 내가 많이 아팠을 때나 아니면 피아노를 잘 쳐서 당신을 자랑스럽게 했을 때만 그나마 나에게 약간의 관심을 보여 주셨죠. 난 어머니를 기쁘게 해 드릴 때만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 느낄 수 있었어요. 난 당신에게 있어서 오직 당신을 기쁘게 하는 것들에게만 의미를 느끼게 하셨죠. 난 당신을 기쁘게 했을 때에만 중요했던 거예요. 어머니는 나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단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 어머니 나는 정말 난, 너무나 외로웠어요.

- 존 브래드 쇼의 『상처받은 내면아이 치유』중 -

또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은 자신들이 먼저 '긍정적으로 변형시킨 꾸지람'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들의 행복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부족했던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제공해 줄 계획들을 세우곤 한다. ...그러다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 육아란 사랑의 꿈보다는 훨씬 많은 게 요구된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어느 날 문득,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바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며... 때로는 현실에 굴복해 버리기도 한다. ...우리는 원가족에서 배우지 못한 기술들을, 그것도 아주 많은 기술들을 다시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 Clarke & Connie, 1989 -

자녀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J, H와 K는 그들의 부모가 힘든 삶을 살면서도 자신들을 이처럼 건강하고 훌륭하게 길러준 것처럼 그들의 자녀를 위해 오늘도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다.

■ 참고문헌

- 김미혜, 김정미, 박지연(2003). 대상관계이론. **서강교육, 1**, 72-91.
- 김완선(1996). 부모의 정서적 학대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은주(2003). 어머니의 언어적 학대와 유아의 정서기능과의 관계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규(2008). **계슈탈트 심리치료**. 서울: 학지사.
- 김현수(2002). 대상관계이론에 관한 고찰. **원광대학교 학생생활연구, 23**, 1-25.
- 김현주(2002). 어머니가 지각한 친정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인 딸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비교.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노안영(2008). **상담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안이환(2000). 대상관계이론과 실제. **부산대학교 학생생활 연구**, 32(2), 47-59.
- 엄지숙(1999).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를 통한 유아 세계 이해 :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1학년으로의 전이 경험 연구를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2(3), 57-82.
- 엄지숙(2003). 교육연구에서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의 개념, 절차, 그리고 딜레마. **교육인류학연구**, 6(1), 119-140.
- 엄지숙(2009). 유아교육과 편입생들의 편입 후 대학생활 경험에 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4(2), 239-263.
- 임종렬(1997). **대상관계이론과 가족치료**. 서울: 신한.
- 장미자(1998). 애착의 세대간 전이,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장혜자(2002). 세대를 통하여 전이되는 조모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조모의 양육지원.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정광순(2006). 초등학생의 유학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교육인류학연구**, 9(2), 117-139.
- 정혜승(2000). 어머니 자신의 부모 애착 및 양육행동과 자녀 애착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추소정(2002). 정서적 학대와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인숙(2002). 부모의 아동관과 처벌과의 관계성 탐색: 신체적 처벌과 언어적 폭력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ettelheim, B.(2006). *A good enough parent*. New York: Knopf. **이만하면 좋은 부모**. 김성일, 강선보(공역). 서울: 창지사. (1987년 원저발간)
- Bowen, M.(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J. Aronson.
- Bowlby, J.(1973). *The attachment and loss*(Vol. 1.). New York: Basic.
- Bradshaw, J.(2004). *Homecoming: Reclaiming and championing your inner child*. New York: Bantam Books. **상처받은 내면아이 치유**. 오재은(역). 서울: 학지사. (1990년 원저발간)
- Bretheroton, L., Biringen, Z., & Ridgeway, D.(1991). The parental side of attachment. In K. Pillemer, & K. McCartny (Eds.), *Parent-Child relations throughout life*. NJ: LEA.
- Briere, J., & Runtz, M.(1988). Multivariate correlates of childhood psychological and physical maltreatment among university women. *Child Abuse & Neglect*, 12(1): 331-341.
- Carr, D.(1986). *Time, narrative, history*. Blooming: Indiana University Press.
- Carter, K.(1993). The place of story in the study of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Educational Researcher*, 22(1), 5-12.
- Casement, P. J.(2003). *Learning from the patient*. New York: Guilford Press. **환자에게서 배우기**. 김석도(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1년 원저발간)
- Clandinin, D. J., & Connelly, F. M.(1991). Narrative and story in practice and research. D. Schon(Ed.). *The reflective turn*.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258-281.
- Clandinin, D. J., & Connelly, F. M.(2000).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Clarke, J. I., & Connie, D.(1989). *Growing up again*. New York: Harper & Row.
- Connelly, F. M., & Clandinin, D. J.(1990). Stories of experience and narrative inquiry. *Educational Researcher*, 19(5), 2-14.
- Cooper, J. E.(1991). *Telling our own stories: The reading and writing of journals or diaries*. Witherell, C. & Noddings, N. eds. *Stories lives tell: Narrative and dialogue in education*(pp. 96-112).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Columbia University.
- Elbaz, F.(1991). Research on Teachers knowledge: The Evolution of a Discours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3, 1-19.
- Gurman, A. S., & Kniskem, D. P.(1991). *Handbook of Family Therapy*. NY: Brunner / Mazel.
- Johnson, J. G., Cohen, P., Smailes, E. M., Skodol, A. E., Brown, J., & Oldham, J. M.(2001). Childhood verbal abuse and risk for personality disorders during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Comprehensive Psychiatry*, 42, 16-23.
- Harkness, K. L., & Wildes, J. E.(2002). Childhood adversity and anxiety versus dysthymia comorbidity in major depression. *Psychological Medicine*, 32(7), 1239-1249.
- Hinshelwood, R. D.(2006). *Clinical Klein: from theory to*

- practice*. California: Perseus Book. **임상적 클라인: 이론과 실제**. 이재훈(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4년 원저발간)
- Kent, A., & Waller, G.(1998). The impact of childhood emotional abuse: An extension of the Child Abuse and Trauma Scale. *Child Abuse & Neglect*, 22(5), 393-399.
- MacIntyre, A.(1981). *After virtue: A study in moral theory*. Notre Dam: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Martin, B.(1975). *Parent-child relation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attingly, C.(1991). *Narrative reflections on practical actions: Two learning experiments in reflective storytelling*. Schon, D. ed. The reflective turn(pp. 235-257).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Missildine, W. H.(2008). *Your inner child your past*. New York: Simon & Schuster. **몸에 밴 어린 시절**. 이석규, 이종범(공역). 서울: 가톨릭출판사. (1963년 원저발간)
- Mullen, P. E., Martin, J. L., Anderson, J. C., Romans, S. E., & Herbison, G. P.(1996). The long-term impact of the physical, emotional, and sexual abuse of children: A community study. *Child Abuse & Neglect*, 28(3), 339-354.
- Perls, F. S.(1969). *Ego, hunger and aggression*. New York: Vintage Books.
- Perls, F. S.(1976). *The gestalt approach & eyewitness to therapy*. New York: Bantam Books.
- Polkinghorne, D. E.(1988). *Narrative knowing and human science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Raymond, D., Butt, R., & Townsend, D.(1992). Contexts for teacher development: In sights from teachers' stories. A. Hargreaves & M. G. Fullan(eds.). *Understanding teacher development* (pp.143-161). New York: Teacher College Press.
- Rich, D. J., Gingerich, K. J., & Rosen, L. A.(1997). Childhood emotional abuse and associated psychotherapy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Psychotherapy*, 11, 13-28.
- Saul, L. J.(2005). *The childhood emotional pattern*.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아동기 감정양식**. 이근후, 박영숙, 문홍세(공역). 서울: 하나의 학사. (1977년 원저발간)
- Wallbridge, D., & Davis, M.(1997). *Boundary and space*. New York: Brunner / Mazel. **울타리와 공간**. 이재훈(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81년 원저발간)

접 수 일 : 2009년 8월 1일

심사시작일 : 2009년 8월 6일

게재확정일 : 2009년 9월 7일